

제2023-10회  
(정기회)

#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중앙집행위원회

일시 2023. 4. 24. 21:00

장소 창의학습관 터만홀

의사 일정 보고안건 제1호 / 보고안건 제2호 / 심의안건 제1호 / 심의안건 제2호 / 심의안건 제3호 / 심의안건 제4호 / 심의안건 제5호 / 인준안건 제1호 / 논의안건 제1호

부의 안건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  
심의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심의안건 제2호 물리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심의안건 제3호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심의안건 제4호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설치안  
심의안건 제5호 졸업준비위원회 설치안  
인준안건 제1호 졸업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봄학기 학생자치단체 간부장학생 선발 방법 논의안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4. 24. 21:18

폐회 일시 2023. 4. 24. 23:38

---

### ○개회 시 출석 중앙운영위원(19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도윤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 ○결석·지각·조퇴 중앙운영위원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결석)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결석)

### ○서기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

### ○전문기구 측 참석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최윤석

### ○참관인

김도연(22, 원자력및양자공학과) / 김성원(23, 새내기과정학부)

# 의 사

(21:28 개회)

○의장 한정현: 회의가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났으므로 참석하신 위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사무국장께서는 성원을 점검하여 간사께 성원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성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섭: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 중앙운영위원 21명 중 19명 재석하였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현재 시각 21시 28분 제2023-10회 중앙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2건의 보고안건과 5건의 심의안건, 1건의 인준안건 및 1건의 논의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안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학우들께 송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운영의회 의장 한정현입니다. 우선 마이크 이슈로 회의가 지연된 점 사과드립니다. 본 회의는 제2023-10회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로 학생회 제55조제1항에 따라 매달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회의로 올해 네 번째로 소집되는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이자 제34대 학부 총학생회가 임기를 개시한 이후로 네 번째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었고 또 최근에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졸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을 고려하면 넉넉하지만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졸업준비위원회가 구성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중앙운영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졸업준비위원회는 KAIST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두 가지 안건으로 모두 다루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건을 다루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해 힘써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월 달에는 새로운 학생 자치가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뇌인지과학과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같은 신규 학과 학생회에서 새롭게 학생회를 설립하여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뇌인지과학과는 현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뇌인지과학과학생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된 미팅을 진행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학과 학생회장분들의 협조로 그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도체시스템공학과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학과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문위원을 여러분들 중앙운영위원분들 중에서 모집할 예정인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선배 중앙운영위원으로서 또 선배 학과 학생회장으로서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구에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는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격려금과 장학금 시리즈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안건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에 제2023-6회 중앙운영위원회부터 제2023-2회 전학대회를 시작으로 오늘 4월 달에 열리는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까지 격려금 및 간부장학금 관련 안건들이 여러 차례 올라왔습니다. 이런 안건들에 대한 중지부를 짚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장으로서 모든 회의 구성원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각 안건에 대한 논의는 유관 기구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본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조금 지연된 만큼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시도록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공지한 것처럼 소집 공고에 공지한 안건 순서대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제출된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는 없으며 의사진행 발언이나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 등을 현장에서 제출할 위원이 안 계시다면 의사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한정현: 물리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입니다. 저희 물리학과에서 올린 심의안 중에서 추가경정 심의안 올렸었는데 이게 저저번 주 금요일날 했었는데 인원 변동이랑 가능한 MT를 가는데 MT 숙박 시설에 가능한 곳이 변경돼서 가격이 좀 변경될 것 같은데 이거 수정해서 다시 올려도 될까요?

○의장 한정현: 말씀해 주신 내용은 해당 안건을 철회하고 추후에 다시 제출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지금 숫자만 바꾸고 제출하면 안 될까요?

○의장 한정현: 우선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혹시 금액 변동이 150% 이내에서 된다면 회계감사 매뉴얼 상에 150% 이내의 초과 지출은 가능해서 그런 부분은 수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근데 이번에 150%가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전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장 한정현: 네 그러면 말씀 주신 사항은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는 아니고 이제 안건 내용의 수정안을, 수정 동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의사일정과는 무관하게 해당 안건의 수정 동의는 저희가 안건 심의할 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별도로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나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계시까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것처럼 소집 공고에 부의한 안건 순서대로 보고안건, 심의안건, 인준안건, 논의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 1.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학생회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의결 기구의 본회 및 본회의 회원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부터는 총학생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학부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지난 중앙운영위원회 이후로 활동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설명). 그리고 그 외의 사항들은 지금 작성한 활동 보고를 확인하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신소재공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통킵보드 안전 관련해서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총학생회 회장단의 뭐랄까 뭐라고 하죠. 의견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장 한정현: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 바탕으로 총학생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먼저 의견이라고 하면 어느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전동 키펀드에 대한 의견인가요? 아니면 전동 키펀드를 학생이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한 의견인가요? 아니면 뭐 해 여기 회의 결과는 최근에 안전 사고가 큰 건이 하나 발생하여서 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학생들이 안전한 키펀드를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안은 (주요내용 설명).

○의장 한정현: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네, 답변되었습니다.

○의장 한정현: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시험 기간 중에 충전 중인 전동 키펀드가 폭발해서 화재 사고로 인해서 학생들이 공부 중에 대피하는 일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와 이거 관련해서도 대응이 이뤄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예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개인 전동키펀드를 충전하는 과정에서도 안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당 논의(회의)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주요내용 설명).

○의장 한정현: 논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께서 충분히 설명해주셨고, 인지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VOK측을 통해서 새벽 2시에 전달받아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답변되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더 받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없으시면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해커톤 랩을 미술관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학생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주요내용 설명) 이렇게 하여 미술관 사무실을 해커톤랩 A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설명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면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보고안건 제1호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그 밖에 총학생회장단의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학부 총학생회 이메일 또는 총학생회장단의 개인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2.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58조제2항, 제80조제5항, 제91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17조제2항에 따라 각 단위에서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각 단위 기구장께서는 운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보고 사전에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27개 단위에서 보고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단위별로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정하겠습니다. 또한 발언 순서는 본 표에 적힌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단위가 아니거나 금일 참관하지 않으셔서 발언이 불가능한 단위에서는 제가 주요 내용만 대리로 보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단위의 보고가 끝나면 제가 별도로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다음 단위에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중앙집행위원회부터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학부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저희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타운홀 미팅을 기획하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넵죽이 이모티콘 배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이어서 학생복지위원회부터 학생문화공간위원회까지 제가 대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설명). 건설및환경공학과부터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헌: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헌입니다. 3월 31일 건설및환경공학과 딸기 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 네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입니다. 4월 4일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 진행하였습니다.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입니다. (주요내용 설명).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물리학과에서는 딸기 파티를 진행하였고 스터디를 시작했으며 헬프데스크를 세 과목 운영했습니다.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바이오및뇌공학과에서는 아메리카노 쿠폰을 나눠주는 시험 기간 간식 이벤트 그리고 딸기 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산업디자인학과에서는 4월 4일에 벚꽃파티 진행했습니다.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도운:  
산업및시스템공학과에서는 3월 말 딸기 파티 진행했고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 진행했고 학생회 MT 진행했습니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 생명과학과에서 딸기 파티 진행했고 인스타그램 이벤트랑 간식 이벤트 진행했습니다.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 추가 모집 완료했고 봄 학기 아이스 브레이킹 행사와 학생의 딸기 파티 그리고 학생의 딸기 파티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MT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3월 21일부터 스터디 그룹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4월 5일에 간식 이벤트 진행했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간식 이벤트랑 헬프데스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전산학부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 설명) 이상입니다.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입니다. 딸기 파티와 신입생 환영회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입니다. (주요내용 설명) 이상입니다.

○새내기학생회장 송채빈: 네, 새내기학생회장 송채빈입니다. (주요내용 설명). 이상입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동아리연합회에서는 동아리 지원금을 선정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안전점검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장 한정현: 감사원 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보고 사항 없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겸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오윤석: 네 문화자치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자치위원회 회칙에 따라서 VOK와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심의 진행했습니다.

○의장 한정현: 소통국제화위원회 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설명). 이상입니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최윤석: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참관인 최윤석입니다. (주요내용 설명).

○의장 한정현: 단위별 운영 보고 작성하고 제출하고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참관인(김도연, 원자력양자공학과)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 관련이라면 제출이 조금 늦어서 다음 중앙운영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인 김도연: 방금 질문하려던 거여서...

○의장 한정현: 알겠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들은 (해당 안건이) 부의된다고 통보가 나가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최윤석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최윤석: 네 4월 4일에 회칙 개정 관련해서 보고 안건 전달드린 바 있는데 혹시 이것도 보류된 것일까요.

○의장 한정현: 네 맞습니다. 그 부분 회칙 개정 소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거쳐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검토 결과 및 보류 사유는 저희가 금일 혹은 명일중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여러분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제가 한두가지 여쭙봐도 될까요.

○의장 한정현: 전산학부 학생회장께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것이 CS케이더링이 어떤 사업인지 좀 여쭙봐도 될까요.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CS케이더링은 작년까지 진행했던 진로 콘서트를 지난 학과 설명회 방식을 차용하여 확대한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진로 콘서트를 정적인 강의실에서 연사님의 강연 형태로 진행하던 것을 그룹을 한 5개 정도로 나눠서 5개의 작은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식을 자유롭게 먹으면서 강연을 듣는 사업입니다.

○의장 한정현: 설명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에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것이 총장님과의 딸기 파티에 오시고 또 첫 타사에도 오셔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카이스 선언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고 요청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반영이 된 걸로 파악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파악하신 바가 없나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최윤석: 파악한 바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혹시 다른 위원분들 질문이나 의견 더 있으실까요.

별도의 질문이나 의견이 없다면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2호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3. 심의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 심의안

○의장 한정현: 다음은 심의안건입니다. 심의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 심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 심의 의결된 예산안의 변경이 필요하여 학생회칙 제170조에 따라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설명).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혹시 올해 23년도 병역 업체 취업 박람회가 언제쯤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장 한정현: 그 부분은 총학생회장께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의장 한정현: 총학생회장께서 답변 준비하실 동안에 다른 분들 질문이나 이견 더 있으면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리과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 보통 올라오면은 이제 적절한 소위원회에서 이제 저는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저희가 모든 안건을 회부하고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회부하고 바로 부의하기도 하는데 그 안건은 본 회의에 바로 부의하였습니다. 별도의 검토 보고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학생회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아까 말씀해 주신 게 2023 상반기 카이스트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 취업 박람회 이거 일정을 여쭙보신 걸로 확인됐는데 제가 관련해서 계약서랑 지금 사업 입찰하는 곳에서 보내준 내용들을

봤는데 지금 일자는 딱히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지금은 모르고 제가 질문을 주셨으니까 원총이랑 얘기를 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상반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구체적인 일시는 저희가 확인 후에 따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네 그러면 심의안건 제1호 표결을 개시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는 수입 추가경정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심의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1호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 4. 심의안건 제2호 물리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2호 물리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 의결된 예산안의 변경이 필요하여 학생회칙 제170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의장 한정현: 우선은 물리학과 학생회장께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는 걸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러면 여기 기재된 40만 원을 6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네, 맞습니다.

○의장 한정현: 물리학과에서 기존에 제출한 2023년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당해 연도 예산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동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1인 이상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에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한정현: 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원래 저희 기층예산소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던 안건인데 제가 저희가 시험 기간 이후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내부에서 나왔던 의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차 여쭙보고자 제가 직전에 손을 들었는데요. 저희 내부에서 앞에 주요 내용상에서는 숙박비 이외에도 음료 구입비나 식사비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안에 표기가 안 된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 차 여쭙습니다.

○의장 한정현: 상기 주요 내용에 있는 40만 원의 출장비 예산이 아닌 그 밖의 참가비 예산에 대한 수입과 지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좌로 참가비를 받고 집행하는 것으로 전달받아서 본 예산안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리학과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저도 그 부분이 헛갈려서 질문 드렸었는데 물리학과 학생의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로 참가비랑 학과 지원비를 사용하면 괜찮다고 해서 저희 물리학과 학생회 계좌로 사용하는 숙박비만 기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쉽게 말해서 총무가 운영하고 있는 공금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하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해서 거기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거나 하지는 않고 참고 자료로만 MT 참가비를 기재해 주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산학부에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의장 한정현: 통상적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이,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으면 이제 안건의 부의를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산 심의안의 경우에는 안건을 미룰 경우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 부득이하게 직권 상정하게 되었고 향후에는 좀 기간을 널널하게 드려서 충분히 검토 보고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저희 수정동의안 의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물리학과에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여기 나와 있는 40만원을 6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손을 든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이의가 있으신 건가요?

○의장 한정현: 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원래 저희가 수정을 하게 된다면 새로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의장 한정현: 예 맞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그럼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의장 한정현: 네 지금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사후에 안건지에 결과 공고시 반영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그러면은 이의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발언하실 내용 더 있으시면 지금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현: 추가적인 발언이나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 물리학과에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심의안건 제2호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40만원이 아니라 60만원으로 보고 심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네 그럼 표결을 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의유무로 표결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2호 물리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한정현: 별도로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2호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

### 5. 심의안건 제3호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 심의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3호 학생 소수자인권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 심의 의결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여 학생회칙 제170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부터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최윤석: 학생 소수자인권위원회 최윤석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마찬가지로 수입 추경이고 기 편성 예산 총지출의 0%이기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가능한 규모입니다. 석림태울제 부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대비하기 위해 수입 예산을 추가하였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석림태울제 부스 관련해서 지출에는 어떠한 항목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혹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부스를 운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의장 한정현: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최윤석: 저희가 관련 부스를 운영하면서 키링을 만들고 이를 키링 만드는 체험을 하고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출 원래 사업 수익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그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런 행사를 수익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혹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건가요?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최윤석: 행사 진행에 관한 예산은 이미 제출하고 심의를 받은 상황이고 이에 관한 수입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의장 한정현: 보고 계신 표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023년 상반기 예산안인데 이 중에 그러면 부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최윤석: 네네 2차 인권 행사 총학생회비 비정기 사업비 2차 인권 행사를 보시면 키링 부자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네 이미 행사 진행에 필요한 예산은 심의를 받았고 수익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네 수입에 관한 추가경정 예산만 심의 받고자 합니다.

○의장 한정현: 여기 나오는 2차 인권 행사와 석림태울제 부스 운영이 같은 사업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최윤석: 2차 인권 행사가 석림태울제 부스에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의장 한정현: 석림태울제 기간 중에 2차 인권 행사를 함께 하면서 그 일환으로 석림태울제 부스로 신청하여 부스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참관인 최윤석: 네네.

○의장 한정현: 알겠습니다. 전산학부에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추가적인 질문 필요하시면 발언권 더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답변은 충분히 잘 되었고요 한 가지 약간 우려되는 사항은 학생회비로 지금 그러면 지원받은 금액으로 부스를 운영한 후에 그 수익을 자치로 돌리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건전한 회계운영의 방향이 맞는지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말씀해 주신 사항은 학생회비를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자체 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 회계 운영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 특별히 덧붙이실 말이 있을까요? 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최윤석: 그럼 혹시 이 수입을 학생회비로 분류하는 것은 또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자치로 제출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좀 불건전한 회계 운영 방식이라 생각되시면 다른 재원으로 재원 분류로 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부스 운영할 때는 자치회계를 사용해서 그 수익을 기타 수익금으로 다시 자치회계로 돌려받는 방법을 쓰는데 전문기구의 경우에는 별도로 자치 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학생회비를 사용해서 부스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별도로 수익 사업을 하지 않아서 자치회계가

없었다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자치회계를 축적을 하고 추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회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해준다면 말씀해 주신 우려 사항이 일정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더 하실 말 있으실까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최윤석: 아니요.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생회비를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은 최대한 다른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는 추후에 예산 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자치 회계를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더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도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 3호를 표결하고자 하는데 표결 개시해도 괜찮을까요.

○의장 한정현: 본 안건은 직접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진행)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 사유 기권 사유 하나씩 받겠습니다. 기권 사유 먼저 받을까요. 수리과학과에서 기권 사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전산학부 학생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기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전산학부 학생 회장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비를 사용하여 자치 수익을 얻는 것이 과연 건전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물리학과 반대 사유 남기겠습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입니다. 찬성 누른 줄 알았는데 반대로 돼 있어서...

○의장 한정현: 이상으로 심의안건 제3호는 가결되었습니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는 퇴실하셔도 괜찮습니다. 안건 제출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6. 심의안건 제4호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설치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4호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설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 제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6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특임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 회칙 개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설명)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설명)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계획 설명)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업무 설명)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계획 설명). 활동 계획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활동 계획 설명) 참고사항으로 학생회칙 제62조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9페이지 30페이지부터 첨부한 학생회칙 개정 특위 위원회 설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현: 여러분들 해당 안건 검토할 시간 드리고 질문이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전 중운위에서 논의되었던 문화자치위원회 사례를 보았을 때 제5조, 운영규칙 제5조 항목에 각각의 T/O에 있는 인원이 충분히 모집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예외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하도록 규정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우선 해당 운영규칙은 이번 특임위원회가 설치되고 해산되기까지 범위로 적용되는 규정임을 먼저 안내를 드리고요 이번 특임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해당 인원들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의장 한정현: 해당 운영규칙이 해를 거듭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회칙개정특임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그 이후에 해산하기까지만 적용되는 임시 규정임을 덧붙여서 설명드립니다. 충분한 설명되었을까요?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분들 질문에 의견 더 받겠습니다. 참관인 분들도 질문이나 의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의장 한정현: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의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심의안건 제4호 표결을 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전에 배부드린 전자투표 링크를 접속하여 심의안건 제4호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진행) 심의안건 제4호 재석 19명 중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정현: 기권 사유 남기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출한 안건이어서 기권했습니다. 새내기학생회장께서도 기권 사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새내기학생회장 송채빈입니다. 개인적으로 회칙개정특임위원회에 필요성을 조금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기권하였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

## 7. 심의안건 제5호 졸업준비위원회 설치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5호 졸업준비위원회 설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6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설명) 기능은 졸업 앨범 사업 및 학위 수여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위원회는 졸업앨범 사업 및 학위 수여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학생회장단 중 1인, 학부학과 학생회별 책임자 18인, 중앙집행위원회 복지팀장 1인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계획 설명) 활동 계획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활동계획 설명)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학생회칙 제62조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첨부한 졸업준비위원회 설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지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졸업준비위원회 설치안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 검토할 시간 드리고 질문이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질문이나 의견 없으신가요? 별도로 질문이나 의견 없다면 본 안건의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심의안건 제5호 표결을 개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사전에 배부드린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심의안건 제5호를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진행) 심의안건 제5호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8. 인준안건 제1호 졸업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의장 한정현: 네, 인준안건입니다. 인준안건 제1호 졸업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학생회칙 제62조에 따라 설치한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을 인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설명)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설명) 질문이나 의견을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질문이나 의견 없으신가요

○의장 한정현: 없으면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네, 인준안건 제1호 표결을 개시하겠습니다.

이의유무로 표결하겠습니다. 인준안건 제1호 졸업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인준안건 제1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정현: 상기 20인을 대상으로 졸업준비위원회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여 후속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졸업준비위원회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해 힘써주신 중앙운영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9.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봄학기 학생 자치단체 간부 장학생 선발 방법 논의안

○의장 한정현: 마지막 안건입니다.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봄학기 학생 자치단체 간부 장학생 선발 방법 논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4호입니다. 전학대회로부터 안건의 일부 내용이 위임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45조 및 재정운용세칙 제28조에 따라 격려금 분배안을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서 심의 의결함에 따라 간부 장학생 선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제2023-3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논의안건 제1호의 결과에 따라 남은 T/O 다섯자리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부터는 총학생회장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학부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주요내용 설명)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요지는 남은 다섯 자리의 T/O에 대해서 전학대회 소위원회 위원장께 배분을 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학대회 소위원회가 현재 8개 소위원회가 구성 중인데 그중에 상기 3개 소위원회, 기층예산소위원회, 중앙회계소위원회, 회칙개정소위원회 기본적으로 배정을 하고 남은 두 개의 T/O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일단 지난 전학대회에서 연기된 이후로 좋은 안건 가져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의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소위원회 중에서 저 세 가지 소위원회가 특별히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간부장학금의 취지와 잘 맞는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격려금을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각각 같은 수준의 단체에 대해서 업무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으니 더 좀 더 그런 당위성이나 대위성을 좀 찾자는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런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소위원회가 이 소위원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좀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소위원회 원래 취지 그리고 간부장학금의 취지 두 모두와 좀 안 맞는 것은 아닌가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5개의 소위원회를 확정하지 않으면 선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질 겁니다.

소위원장이 5명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라는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양한 기준에서 그러니까 전학대에서 연기된 원안대로 더 다양한 기준에서 누가 학생사회 학우들 전체에게 더 많이 기여했는지를 기준을 선발하는 것이 좀 더 간부장학금의 원래 취지를 맞추기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의견을 드리고요 소위원회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이게 계속될지 안될지의 여부도 사실 아직 모르고 물론 이 논의를 매년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간부장학금이 지금 초기에 정착하는 단계인 만큼 이왕이면 안정성을 중요시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면 좀 일회성 결정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고요 처음에 전학대회에서 연기됐을 때는 전문기구 특별기구에 T/O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기구 특별기구 장들도 이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예를 들어 교내 방송 담당하는 VOK 그리고 OTL 아라 같이 학우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를 관리하는 SPARCS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T/O를 아예 못 받을 만큼 가벼운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의 T/O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전학대회 안과 동일하게 자치기구 4 전문기구 1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선발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개별 학과 학생회가 어느 학과 학생회가 다른 학과 학생회보다 일을 더 많이 했네 적게 했네 더 간부장학금을 받을 만 하네 못 받을 만 하네는 당연히 따질 수 없겠습니다만 학생회장 개인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일을 더 많이 학생들에게 더 많이 기여를 했네 적게 했네 정도는 충분히 비교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제도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33대 총학생회 당시, 2020년에 소위원회 제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우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사안은 어떤 단체 소위원회 지금 여기 세개가 더 열심히 혹은 더 많은 회의를 진행하고 더 많은 일을 진행하니까 주자라고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소위원회와의 어떤 비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경중을 따질 수 없다는 얘기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치기구 4개로 하고 전문기구 특별기구 1개로 하면 그 과정에서도 반드시 선발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먼저 첫 번째와 두세 번째 얘기가 굉장히 상충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간부장학생 같은 경우는 총 17개의 T/O가 제한된 이상 어쨌든 간에 선발 절차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그리고 항상 이 논의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은 저는 학과 학생회 학부 학생회에서는 업무의 경중 혹은 그 업무로 인한 학생분들께 제공되는 4천 학생분들께 제공되는 혜택의 차이를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였고 이 세 가지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소위원회에 비해서 확실히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간부장학생의 선발이 되면 보다 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어떠한 혜택도 없이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 혹은 그런 것들이 없이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학생이 더 해당 업무에 집중하고 이 업무를 하면서 간부장학생의 선발이 되기 때문에 50만 원을 받음으로써 그때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시간에 더 학생 사회에 발전할 수 있는 데 시간을 쏟는다면 그거야말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런데 다른 곳들의 경중을 따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넣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신 거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 바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도 봄학기 학생 자치단체 간부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지금 전학대회 소위원회 제도를 제도가 유지될지 안 될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우선 중앙집행위원회 T/O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봄 학기의 경우에는 팀장 팀장으로 재정 사무국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국서 외에 본인이 국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거의 국장과 비슷한 류의 업무를 수행하나 본인은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팀장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무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어서 T/O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T/O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학대회 소위원회를 넣는 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논의를 확정해서 이 논의를 앞으로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확실히 다른 틀을 정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데에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일단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소위원회가 내년에 지속되든 안 되든 올해에 대해서만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숫자를 바꾸는 것은 내년이든 다음 학기가 됐든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냥 논의해서 중앙집행위원회 국장이 몇 명에서 몇 명이 됐으니 T/O를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하면 모두가 쉽게 동의할 것이고 하지만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한 번 정할 때 기준을 지속 가능하게 잘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물론 세 개의 소위원회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이 조금 더 많을 현재 시점에서 많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그들이 더 원활하고 진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소위원회에만 간부장학금을 부여하게 될 경우 받지 못하는 나머지 소위원회 위원장들은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안 들지 않을까라는 아주 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저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지 않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예를 들어 실제로 아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기준에 없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두 개 하시는 분이 있으면 분명히 저 분들만큼이나 소위원회 제도나 또 전학대회 그리고 학생 사회 전체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특정하기보다는 그냥 다시 한 번 선발을 어쨌든 전체를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선발을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두 분 말씀해 주신 내용 모두 확인했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설명을 덧붙이면 우선은 저기 세 개의 소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소위원회를 두 개를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확인 결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은 저희가 중의위원 대상으로 간부장학금을 확정을 할 때는 중의위원은 간부장학금을 받고 인성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부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인사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세 분 소위원회 위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발언권 먼저 신청해 주신 동아리연합회장께...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잠시 정리할 시간을 좀...

○의장 한정현: 그러면 총학생회장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러면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지금 3곳에 총 일단 우리 소위원회는 8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층예산소위원회, 중앙회계소위원회, 회칙개정소위원회, 선거소위원회, 인준소위원회, 특별기구소위원회, 문화 소위원회, 결산소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3개 기구에서 3개의 소위원회 위원장이 받고 5개의 소위원장이 받지 못하면 그런 그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이 간부장학금이나 격려금 같은 것이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 줘서는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취지가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어느 기구에 주겠다고 정해놓지 않고 나중에 선발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된다면 그럼 오히려 반대로 그분들 중에 결국 못 받게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선발하는 절차에서는 어느

위원회에서 더 열심히 활동을 했는지를 따지게 될 텐데 지금 다른 소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적어놓은 세개의 소위원회에 비해서 많은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분들이 제외되는 건 우리가 공정하게 모두에게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괜찮은 거고 지금 미리 이 세 분을 정해 놓으면 그럼 아예 받을 수 없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니깐 불공평하다고 하는 거면 그건 결과만 따져도 지금 이 순간에만 그냥 보기 좋게 넘어가는 것이지 결국 그분들은 그럼 우리에게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해놓고 나중에 보면 더 열심히 활동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다른 소위원회 위원장들이 같은 간부장학생이 선발돼 버리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함께 논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정현: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분 계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동아리연합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네 일단은 먼저 처음으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카이위키를 찾아보니까 21년도 22년도에는 간부장학금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다른 바가 없어가지고 이전에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간부장학금 관련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를 여쭙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 발의한 이 안건을 처음 발의한 사람이 총학생회장님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의장 한정현: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설명 가능하실까요.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 간부장학금 권한을 누구한테 줄지에 대한 권한은 원래 이제 총학생회장님이 이제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이제 중앙운영위원회에 처음으로 부의한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부의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저희가 주문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보게 된 겁니다.

○의장 한정현: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이전에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간부장학금은 총학생회장단이 받다가 21년도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할 때 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요청을 해가지고 간부장학금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봄 학기부터 기존에 받던 총학생회장단에 더해서 총학생학부대학원 총학생회 임원진까지 대학원 총학생회의 23명, 학부 총학생회 17명이 인당 50만 원씩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개편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처음 지급되는 게 22년도 봄학기부터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모집하는 일까지 했었는데 그 이후의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22년도 가을 학기는 특별히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없으나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2022년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격려금 분배를 심의할 당시 격려금과 간부장학금의 중복 수혜를 막고자 하여 해당 내용을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함께 기록을 남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23년도 봄학기에는 격려금과 간부장학금의 중복 수요 문제를 최소화하고 관련 이슈를 해소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을 부의한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을까요?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방금 학생회칙을 찾아봤는데 학생회 측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으로 간부장학금 관련된 항목이 이제 없었던 걸로 이제 방금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격려금도 다 이제 지급되었겠다.

간부장학금 논의를 이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더 이상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원회가 일시적이라고 전산학부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내년도 총학생회가 꾸려지면은 내년도 총학생회장 계속 간부장학금 권한에 대해서 그 총학생회장이



가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내년 총학생회장이 생각을 해야 될 일이지 저희가 이런 이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런 기준을 너희도 적용해라 이런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져온 안건을 가져온 사람이 총학생회장이고 그리고 이제 총학생회장님께서 적절하게 그 기준을 새로 짜오셨으니까 원안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본 안건을 중운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입니다. 총학생회장단도 본회의 산하기구여서 해당 조항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간부장학금이 일단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관련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 같고 2022년도 하반기 간부 장학생 선발의 경우에는 제가 그때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해서 지금 2023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이번에는 새롭게 논의를 꺼낸 겁니다.

그때는 일단 격려금이 제공이 되어 되는데 격려금이 제공이 되려면 간부장학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정이 되어 하고 왜냐하면 중복 수혜를 방지해야 하니까요.

근데 그동안은 그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학기 말에 그 누구도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가 간부장학금은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럼 이제 누구를 선발해야 하느냐 그때부터 다시 이제 비대위원장 비대위 관련 인원분들께서 선발을 해 주셔서 그때 급하게 간부장학금 선발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격려금 지급이 이렇게 마무리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럼 이번에는 올바르게 진행을 해보자라고 생각했고 올바르게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런 분들에게 간부장학금을 제공하면 어떨까 그런 합의점을 찾고자 이렇게 논의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굉장히 길어지게 돼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지게 돼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서 그건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정현: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네, 수리과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발언까지 듣고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사실 저는 지금 전학대회 소위원회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거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저 제도는 올해 처음 생겼고 근데 올해 처음 생기게 된 게 총학생 회장단의 공약으로서 생긴 거잖아요.

○의장 한정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 처음 생긴 건 아닙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어쨌든 본인들께서 작년엔 선거 나오셨을 때 총학생회장단 그때는 후보셨죠. 후보로서 나오셨을 때 저 제도를 공약으로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러니까 본인들의 공약으로서 이제 만든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리고 다른 단체들과 다르게 전학대회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학생회칙에 어떤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총학생회장단에서 이제 설립한 단체인데 여기에 이제 T/O를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 사실 저는 그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들의 공약에 있었던 단체고 그러면은 봤을 때 공약으로서 만든 단체에다가 이제 간부장학금 T/O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좋게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말씀하신 염려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학 때의 소위원회는 올해 처음 생긴 제도가 아니라 2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고요 이름이 조금씩 바뀌고 개선되면서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소위원회를 론칭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근거 규정은 저희 회칙에 정확하게 '전학대회

소위원회'라고 규정돼 있지 않지만 이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1조 의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우선은 그런 우려를 혹시 수리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그렇게 우려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고려해 보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그래서 제 질문은 수리학과와 학생회장님이 그렇게 보여지신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답변드린 바는 일단 2020년도에 전학대회 소위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총학생회장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2021년도 2021년도에는 총학생회장단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적극적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이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위원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런데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안 됐다든지 그런 걸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없었고 우리가 지금 우리들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거에 이렇게 간부장학금을 주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속상한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긴 시간 전학대회와 중앙운영위를 하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말씀하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게 우리 이런 예산안 결산안 보는 것들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소위원회 제도를 좀 더 잘 활용해야겠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제도는 저희가 우리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하고자 아니면 우리가 잘한 바로서 어떤 역할 혹은 어떤 어떤 기록을 세우고자 공약을 내세운 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를 많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고민의 결과로서 나온 게 전학대회의 소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소위원회의 필요성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산안이나 회칙 개정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다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소위원회가

정말 열심히 굴러가려면 그럼 위원장을 필두로 많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던 게 전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층예산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금이나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분들께서 학생 사회를 위해서 힘 써주시고 더 힘써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기구별 T/O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너네 공약을 달성하려고 이렇게 돈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전 나올 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여쭙보는 건 이게 수리학과와 학생회장님이 그런 학생들도 있으니까 고려해 보자라는

○의장 한정현: 기층예산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나요? 이거(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의 발언권 신청을) 신상 발언으로 간주해서 바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일단은 소위원회에 관련된 언급은 제가 기억하는 제 발언이 100%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닌 다른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때 나왔던 취지가 전학대회 의원들이 소위원회도 열심히 하니까 전학대회 의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격려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해당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상발언 이외에 추가로 발언권 바로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의장 한정현: 총학생회장께서 발언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필요하실까요.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만할게요

○의장 한정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산학부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저 현행대로 할 경우에 일단 제 생각에는 결산소위원회가 기층 예산이나 중앙회계만큼이나 많은 예산을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네 자리가 확정이 되었고

사실 선거소위원회가 아직까지 처리한 안건은 없지만 선거 처리되었을 때 각 학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과 대표단 선거 안건 및 학생회장단 선거 안건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낄 만하다고 생각해서 다섯 자리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첫 발언 때 말씀드렸던 전문기구는 과연 한 자리도 지급받지 않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반박을 저는 아직 전혀 듣지 못했고 그리고 또 제가 소위원회 말고 다른 기준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생 사회에 대한 학생회장 개인의 기여가 꼭 소위원회로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예를 들어 정말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 계신 이창섭 간사님께서 벌써 10번의 중앙운영위원회와 두 번 이상의 전학대회를 하는 동안 회의에서 시작할 때나 이럴 때 보조로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이런 분도 충분히 받을 만한데 그럼 저걸 명문화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신소재공학과 발언권 필요 없나요. 네 총학생회장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먼저 두 번째 질문인 그런 간사 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미 당사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주는 건 간사라고 한 자리를 적어두면 가볍게 한 자리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고민을 덜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간사는 다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이 고생하는 것만큼 그런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에게 이런 것에 대해 물어봤고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을 수행한 게 아니라면 앞으로도 중앙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같은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 의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다른 분들이 담당할 수 있으니까 간사의 역할은 좀 작게 가져가고 그리고 그 대신 이런 간부 장학생 등에 선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괜찮은지

본인의 의사를 물어봤고 그리고 본인에게 동의를 받았습시다.

○의장 한정현: 그 부분은 설명이 좀 선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신소재공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학과 학생회장 이창섭입니다. 제가 회칙개정소위원회 위원장까지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네. 대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 개인 신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한 가지,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T/O를 배정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논의를 논의에 대해서 제 의견도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금 이게 전산학부 학생회장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학우들 앞에서 “전산과 인구 많은 전산과 회장이니까 인구 많은 전자과 회장이니까 우리가 더 많이 고생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는 인구 적은 소재과 회장이니까 나는 고생 덜 합니다” 라고, “인구 적은 과 회장은 고생 덜 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실제 고생하는 걸 어떻게든 비교하고 계량화해서 적용해야 된다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위원장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기준이고 그게 지금 현재 회칙에 소위원회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실존하는 단체이고 실제로 일을 하는 지금 업무를 진행 중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오직 소위원회를 통해서만 학생 사회에 기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용해서만 다섯 자리를 선발해야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들을 소위원회 위원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을 참고해서 선발하는 것이 선발을 꼭 해야 한다면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만일 이 논의가 정말 지나치게 길어지고 절대 타협할 수 없다. 토론과 토의 등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무작위 추천 방식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께서 다음과 같은 안으로 간부 장학생 선발 방법을 제안해 주셨고요 전산학부 학생회장께서는 소위원회 위원장 5명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이 적절한 기준이 아닐 수 있다.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며 동아리연합회 회장께서는 어차피 선발 권한이 학생회장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수리과학과에서는 소위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학우들께서 보시기에 공약 사업에 조금 재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전산학부 학생회장하고 동아리연합회 회장께 발언권 드리고요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일단은 신소재공학과 학생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발언에 대해서 제 신상발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나 그리고 생각하기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단 한 번도 학과 구성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전산학부가 다른 학과 학생회장들에 비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고요 당연히 모든 학생회장들이 학생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똑같이 동등하게 정말 고생이 많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 의도가 약간 왜곡이 된 것 같아서 정정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학생들에 대한 기여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별 자치기구 소속 학생들에 대한 기여보다도 그런 소속하고 소속기구 소속 기구 하구들의 포선에서 오는 그런 기여의 차이보다도 중앙 학생 사회에서의 기여를 말씀드린 거였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소위원회 말고 명확한 규정이 딱히 없다는 점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방법과 추가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은데, 일단 전문 특별기구장들은 그러면 과대 자격이 아예 없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 세 번째 질문드리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해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확인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럼 받을 자격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결산이나 선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한정현: 마지막 것도 저에게 질문 주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께 발언권 마저 드리고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네 전학대회 소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결국에는 전학대회 산하기구인데 그래서 이제 전학대회 구성원이라고 봐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학대회 소위원회 위원장인지 전학대회 구성원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특별기구장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갈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기구장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투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께서 질문 주신 것 첫 번째가 전문 특별기구에 대한 T/O 포함 여부를 총학생회장께 질문 주셨고 두 번째가 어떤 내용이었죠?

○의장 한정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가 그리고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결산이나 선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장 한정현: 네, 고맙습니다. 소위원회를 운영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학기 국한해서 봤을 때는 검토 보고서 등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지고 판별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말씀주신 것처럼 해를 거듭했을 때 지속적인 판별 방법인가는 저 또한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3월에는 재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소위원회가 안건을 회부하지 않았지만 내년 제 선거가 열린다면 선거소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많아지고 또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상설위원회 위원장단이나 전문기구장이 3월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지 않아서 인준소위원회 안건을 회부하지 않았는데 거의 회부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듬해 3월이나 금년도 9월에 관련 인준안건들이 잔뜩 제출이 된다면 인준소위원회도 또 일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이나 규칙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소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맡을 자격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시적으로 저 세 개의 소위원회가 보고서를 많이 내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그동안 많았음은 제가 보고서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서를 같이 보셨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는 세개의 소위원회가 일을 많이 했음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번 한 학기에 국한된 사안이지 전체 학기나 해를 거듭했을 때도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결산소위원회하고 선거소위원회의 경우에도 앞선 내용과 같은 생각인데요. 올해 결산소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는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년 정기적으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기 소위원회들을 견주거나 그 다음으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선거소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의 특수성이 조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총학생회장께서도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학부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여쭙보셨던 것이 특별기구 전문기구는 기획 자체가 없는데 그 친구들은 이래도 일을 열심히 해도 받지 못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 맞으시죠 네 저는 일단은 우리 전학대회 여기 소위원회 위원장분들을

다섯 분을 명시해 놔는데 여기 위원장분들 아닌데도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 학생회장으로 컸을 때 여기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이 본인 학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분들도 이 간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는 것은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한정된 T/O로 인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그분들 모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거면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VOK, ELKA, SPARCS 이런 다양한 동아리 중에 혹시 어느 단체가 이걸 간부장학생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한 학기가 끝나고 그분들께 본인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라 한 다음에 그것을 검토해서 이번에 특히 이곳은 더 많은 활동을 했네라고 준다면 그것이 더 정당한 방식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의장 한정현: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그렇지만 단순히 선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소위원회 위원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수행하고 학우들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각각의 전문·특별기구장들에게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것은 별로 너무 행정 편의만을 위한 방안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3개 단체 중 VOK 국장으로 이렇게 특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 분 중 그런 전문·특별기구장 중에 한 분 정도는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총학생회장께 이어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제가 단순히 선발할 수 여기 5명 자리가 남는데 그분들이 다섯 분이 아니시니까 줄 수 없다. 우리 편의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 중에 그분들을 제외하고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전학대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 업무만 맡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다 병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가중치를 뒀서 봄학기의 경우에는 이 분들께 제공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리과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짝어서 말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VOK 국장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들고 싶은 게 기층예산소위원회가 이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학생 사회 전체에게 벌어지는 피해보다도 SPARCS에서 OTL 관리를 더 이상 못하게 돼서 얻는 피해가 사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걸로 보았을 때 까 모두에게 다 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 말씀 모두에게 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저기 계신 소위원회 위원장들보다도 좀 더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는 그런 단체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신소재공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어느 날 갑자기 OTL이나 ARA 같은 서비스가 없어졌을 때 그 피해가 우리 지금 저기 써 있는 세 개의 위원회 위원장들이 보고서를 안 냈을 때의 피해보다 더 크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그러니까 VOK 국장이 간부장학금을 안 받는다고 갑자기 VOK에 모든 영상 제작, 이런 중계, 이런 서비스들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SPARCS 국장이 간부장학금을 안 받는다고 갑자기 OTL이나 ARA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ELKA 단장이 간부장학금을 안 받는다고 갑자기 카포전에서 응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는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극단적으로 반대 예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만 물론 기층예산소위원회 위원장이 간부장학금을 안 받는다고 해서 기층 예산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중앙회계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회칙 개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보고서가 안 올라오는 것과 별개로 그렇지만 만약에 돈을 안 받아서 서비스가 중단돼 돈을 안 받아서 기층 예산이

하나도 통과가 안 돼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지금 정리가 잘 안 됐지만

○의장 한정현: 정리를 좀 해서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방금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님의 발언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발언권 신청하신 건가요? 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우선 방금 전에 이제 돈을 안 주면 OTL이 없어지냐 그리고 돈을 안 주면 그의 모든 영상이 안 나오냐 이 발언은 너무 약간 열정 페이를 강요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발언이라서 살짝 예를 들자면 제가 중소기업의 대표인데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월급을 조금 덜 줘도 어차피 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네 일하시는 분들이 억울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이제 OTL을 만드시는 SPARCS라든가 교내에 이제 방송 활동을 하시는 VOK라든가 다 되게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것과 맞아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열정 페이로 모든 것들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재정 구조를 정확히 모르는데 VOK나 스팅스나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정은 존재하지 않나요? 자치 회계가 존재하지 않나요?

○의장 한정현: 존재합니다.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네 그러면 그 자치 회계 안에서 해결을 하라고 어떤 제안을 해도 충분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간부장학금이라는 거를 그분들을 굳이 포함을 해서 이렇게 여기 간부장학금을 통해서 그를 해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수리과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뭐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의견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약간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제 소위원회는 의결기구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소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기층 예산이 물론 통과되는데 덜 수월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더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발언권 신청하신 건가요

○의장 한정현: 그럼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궁금한 것이 있는데 특별기구에는 총 5개가 있는 게 맞나요.

○의장 한정현: 네, 맞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그러면 전학대회 소위원회 위원장 5명 대신 특별기구들한테 주는 건 어떤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학대회 위원은 다 격려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전학대회 소위원회 말고 전문 기구가 4개가 있고 특별기구가 5개가 있긴 합니다. 일단 특별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총학생회 회칙에 따라 조직되고 존재하긴 합니다.

○의장 한정현: 동아리연합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가투표를 제안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정리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지금 발언 하실 분 잠깐만 손들어주시겠어요. 총학생회장 한 분 계시는 것 같네요. 우선 발언권 드리고, 발언 들은 다음에 정리해서 가투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특별기구를로 대체하게 된다면 그러면 특별기구가 아닌 전문기구도 특별기구와 마찬가지로 일을 열심히 해 주고 또 본인들의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보고 싶은 건 저는 이 논의를 가져온 게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면 나중에 총학생회장단이 선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논의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를그동안 진행을 해보니까 우선 다섯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우리 전학대회 의결을 통해서 어쨌든 확정된 바이고 그럼 다섯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의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느 한 레인지로 한정을 해 두지 말고 나중에 다 같이 선발을 해보자라고 지원서를 받아서 선발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굉장히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원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일 자체가 불필요해서 이렇게 확정을 하면 그게 더 그분들에게 본인이 봄 학기에 열심히 활동한 대가로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난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결정을 안 내고 그리고 이런 논의가 계속 길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 다섯 자리를 비워두고 나중에 봄 학기가 끝났을 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서를 받고 그리고 그동안에 했듯이 다섯 자리에 대해서는 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 가져왔던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논의하면 두 명, 총학생회장단 혹은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던 거고 이 자리에서 논의가 끝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지원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선발이 안 될 것이 분명하데 왜냐하면 다른 분들보다 업무나 그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그런 데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그런 불필요한 업무가 생긴 개인에게도 불필요한 업무가 제공이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러면 저희 원안에 대해서 한번 가투표를 받고 같이 소위원회 위원장 5명에게 로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가투표를 받고 이제 그것이 부결된 이후에 여러 가지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하나씩 가투표로 해서 처리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선은 원안에 대해서 가투표를 받겠습니다. 이전처럼 찬성 반대 기권으로 세고요 남은 다섯 자리 T/O를 전학대회 소위원회 위원장 5명에게 배분하는 것에 찬성하면은 찬성에 손 드시고 반대하면 반대, 기권하시면 기권에 손드시면 됩니다.

○의장 한정현: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저 중앙집행위원회 네 자리하고 전학대회 소위원회 위원장 다섯 자리가 모두 격려금을 받고 있는 자리인가요?

○의장 한정현: 여기 있는 (중앙집행위원회) 네 자리, (상설위원회 및 새내기학생회) 두 자리 전부 다 격려금 받고 있습니다.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복위랑 행준위랑 학생문화공간위원회랑 새내기학생회는 모두 격려금을 안 받고 있는 자리인가요

○의장 한정현: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기구에 배정된 T/O가 다 격려금 받는 인원들입니다.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그럼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재석 인원 세겠습니다. 재석하신 위원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가투표 표결 진행) 대의원 21명 중에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투표 결과 전학대회 소위원회 위원장 5명에게 T/O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장 한정현: 여기서 이제 논의하는 방법은 소위원회 위원장 5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인데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인데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몇 명을 배정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소위원회 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 중에 선발한다거나 이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발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새내기학생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큰 골자는, 큰 갈래는, 당연직 배정 또는 8명 중에 선발인 것 같습니다.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네 새내기학생회장

송채빈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방법 중 후자에 해당되는 지원자를 받은 후 해당 지원자에 한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자리에서도 정확히 소위원회 위원장을 5명을 두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꽤나 긴 시간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해당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도 약간 의문이 있을뿐더러 해당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갈래를 정하기보다는 지원자를 받아서 하는 게 간부장학금의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취지에도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저도 여덟 분 중에 다섯 자리를 골라야 하는 거라면 나중에 한 학기에 봄 학기 활동이 끝난 후에 그렇게 지원자를 선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늘 더 논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방금 스물한 분 중에 열세 분인가요 찬성이?

○의장 한정현: 예 맞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열세 분이 찬성하셨고 기권이 일곱 분인데 사실 이 정도 기권이면 적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이 제일 많으니까 넘어가자고 하기에는 그래도 기권 일곱 분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찬성이 많았으니까 그럼 더 이상 이 논의를 하지 않고 전학대회 소위원회 위원장 5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의결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한번 설문조사 투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전체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그러면 논의를 다시 하나요? 가투표 받은 것과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신소재공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사진행 발언 우선적으로 허용합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총학생회장님의 발언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제가 생각하는 건 가투표라고 분명히 하신 것도 찬성 반대 기권 중에 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찬성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대로 하자라는 것보다는 찬성이 많이 나왔는데 이대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체크하는 건 그건 다른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정현: 찬성 반대 기권을 받아서 결과를 정하는 것과 찬성이 이만큼 나왔는데 그게 괜찮은지 정하는 게 일단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요.

(손을 든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발언권 우선해서 드리겠습니다. 의결기구운영세칙 상에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우선해서 발언권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의결기구운영세칙 제11조를 보시면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표결에 의하여 가부를 정하는 때에는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12조로 이제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권 사유와 반대 사유를 적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여러 가지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아리연합회 회장께서 제안한 의사진행 발언을 수용하겠습니다. 가투표를 다시 받는다거나 투표를 다시 받지 않고 관련해서 기권 의사와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서 기재해 두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대하신 새내기학생회장께서 반대 의견 남겨줄 것이 있을까요?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네, 새내기학생회장 송채빈입니다. 앞서서 수많은 의결 내용 중에

하나였던 과연 전학대 소위원회 위원장과 전문 특별기구 위원장의 업무에 있어서의 가중치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나왔던 논의 사항 중에 하나가 뭔가 전문 기구 및 특별기구 위원장들에 있어서 열정 페이를 어찌 보면 요구하는 듯한 의사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간부장학금의 취지에 맞게 주려고 한다면 학생들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전문기구 혹은 특별기구 위원장들에게 있어서 간부장학금을 수혜할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반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신상 발언 신청하신 것으로 확인하였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입니다. 방금 송채빈 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님이라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발언이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발언이라고 해석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발언의 요지는 무엇이었냐면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기구 전문기구에 간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들이 맡고 있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은 기층 예산 소위원회 위원장한테 간부장학금을 안 주면 기층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 와 같이 굉장히 과장된 발언이다. 라는 걸 하기 위한 거였지 절대 그분들 보고 열정 페이하라라는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수리과학과 학생 기자께서도 그런 취지로 발언을 안 하셨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회의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수리과학과 학생 회장님께서도 과장된 발언을 하신 게 아니고 저도 열정 페이성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 분명하게 남기고자 신상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발언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해 주셨습니다.

기권 사유 먼저 남기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기권 사유인가요 네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입니다. 간부장학금이나 격려금이나 다양하게 여러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주는 것이 취지라면 전 처음에 간부장학금이란 격려금 분리해서 나온 안에 동의했던 이유가 중복 수혜가 아니어서 굉장한 동의를 했었는데 간부장학금이나 격려금이나 많은 학생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돈이라면 격려금을 모두 수혜하고 있는 사람들 받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전문기구와 특별기구 총 9자리 중집위하고 전학대회 소위원회 위원장에서 딱 빼서 한 자리씩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서 기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전산학부랑 수리과학과에서는 별도로 의견 남기실 것이 없으실까요? 네 전산학부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원안 제시해 주신 것처럼 소위원회를 네 자치기구 장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나, 전문기구 특별기구장들이 너무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기권하였고요. 전문기구 특별기구가 상설위원회랑 크게 그런 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문이 있어서 네 기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알겠습니다. 수리과학과 발언권 필요하신가요?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관참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저도 기권하였는데 기권 사유는 수리과학과 학생회장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일정 부분 공감을 했고 선발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대상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좁히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어서 기권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문화소위원회하고 기층예산소위원회가 위원장이 같고요 인준소위원회하고 선거소위원회가 위원장이 같아서 소위원회는 8개인데 사람은 6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못 받는 거고 그리고 이 중에는 아마 인성장학금의 수혜 순서가 금년도는 본인인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선발을 하게 되면 5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논의 마치고 전에 5인이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할지만 간략하게 정하고 마치면 추후에 업무 보는 데 있어서 이 안건을 다시 꺼내올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수리과학과 발언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T/O가 이제 수정이 필요할 경우 혹은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계속 나왔었던 전문 특별기구에게 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신소재공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소위원회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6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장 한정현: 네 맞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중복된 게 뭐라 그랬죠 다시?

○의장 한정현: 문화소위원회하고 기층예산소위원회가 겹치고요 인준소위원회하고 선거소위원회가 겹칩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그럼 그럼 선거

○의장 한정현: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위원장 본인께서 좀 확인해 주시면...

○의장 한정현: 본인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께서는 거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한 분이 안 계신

○의장 한정현: 왜 다섯 분일까요. 네,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님까지 해서 6명입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아까 아까 이제 회의 초반에 본 논의 초반에 전산학부 학생회장님께서 소위원회 중에 지금 보면 결산소위원회와 결산은 안 겹치죠 결산은 산시공에서 단독으로 맡고 계시죠

○의장 한정현: 결산은 원양에서 맡고 있고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원양에서 맡고 계신가요? 선거도 시기상 특수할 뿐이지 많은 안건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만요 그리고 나면 남는 게

○의장 한정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자리 중에 기층하고 문화가 겹쳐서 총 6명입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기층하고 문화가 겹치고 선거

○의장 한정현: 선거가 바뇌과에서 하시고 인준이 전자과에서 하십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그러면은

○의장 한정현: 8자리 중에 두 자리가 겹치니까 6명이...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네 아무튼 제가 지금 발언하고 싶은 요지는 회칙 개정소위원회 위원장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께 전학대회 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드러서 지금 본회의에 확정된 다음에 추후 선발 과정이나 추후 논의는 없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회의록에 차마 이런 말까지 남겨야 하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을 굉장히 대충하기 때문에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논의가 다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결원이 생길 때 T/O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었습시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그렇게 위원장 다섯 자리에 고정을 해버리면 결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다섯 분께서 전부 지원을 하신다는 게 확정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아니요. 추후 지원 절차조차 없애버리면 되는 지원 절차를 없애고 중복 수혜 문제 때문에 결원이 생길 수 있나요.

○의장 한정현: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 때문에 결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 중에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께 일단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 오윤석: (불명)

○의장 한정현: 예 맞습니다. 결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산업디자인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처음 간부장학생 논의할 때 결원이 생길 경우에 T/O를 없애는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할 수 없을까요.

○의장 한정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면 남은 T/O가 생기면 이제 다른 곳으로 넘기거나 전문, 특별기구가 될 수 있겠고 넘기거나 아니면 그냥 그 T/O를 없애는 것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가투표 진행해서 정하고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질문 더 있으실까요?

○의장 한정현: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저희가 각각 안건을 순서를 정해서 하나 찬성 반대 기권 받고 그 다음 찬성 반대 기권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1안과 2안으로 나눠서 각각에 대해서만 투표를 받고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안은 T/O를 이월하는 것, 2안은 T/O를 그냥 삭제하는 것, 기권은 없습니다. 1안으로 결정되면 어느 곳으로 이월을 할지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

○의장 한정현: 그 부분을 정할 때 차후에 따로 정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나온 대로 전문, 특별기구에 한 자리를 부여한다로 저희가 찬성 반대 기권 투표 받아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발언자 미상: 아직까지 안 나왔던 것으로 봐서 그냥 전문기구 특별기구로 이월하자는 것이 1안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T/O를 없애자라고 하면 어떨까요라고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의장 한정현: 그럼 이 부분 먼저 정하고 갈까요. 1안의 내용을 확정하는 가투표를 받는 겁니다.

이월했을 때 T/O가 남은 잔여 T/O를 이제 2월을 했을 때 이걸 전문, 특별기구로 현재까지 얘기가 제안된

거의 유일하게 제안된 전문, 특별기구로 넘기는 것으로 1안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 가투표를 받고 이게 확정되면 남은 1안과 2안 중에 투표를 받아서 그거대로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나요?

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의장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안의 내용을 확정하는 가투표를 받겠습니다. 잔여 T/O가 생겼을 때 잔여 T/O를 전문기구 및 특별기구로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을 받겠습니다. 재석 세겠습니다.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진행) 네 전체 20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해당 가투표 결과대로 1안은 잔여 T/O 발생 시 전문기구 및 특별기구로 T/O가 이월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투표 받겠습니다. 결원 발생 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1안은 남은 T/O를 전문기구 및 특별기구에 배당하는 T/O로 이월하는 것, 2안은 그냥 그 T/O만큼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 확정이 되면은 한 자리가 남는데 그 한 자리를 1안대로면 한 자리에 대해서만 전문, 특별기구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선발하는 것이고요, 2안은 그냥 그 한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한정현: (표결 진행) 전체 20명 중 1안 찬성 15명 2안 찬성 5명으로 해당 가투표는 1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논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봄학기 학생 자치단체 간부 장학생 선발 방법 논의안은 본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잔여 5개 T/O를 어느 기구에 배정할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학대회 소위원회 8개 중 위원장 5명을 뽑아서 선발해서 지급을 하되 결원 발생 시 남는 T/O에 대해서는 전문기구 및 특별기구를 대상으로 해당 기구장 중에 선발하여

간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나 의견 더 있으실까요. 아니면 정리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사항이나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표현 명확하게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도운: 이후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저희가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6분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5명을 선발해야 됩니다. 선발은 저희가 봄학기 종강 이후에 안내를 드릴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안내에 따라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총 다섯 분을 선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다섯 분보다 적게 선발될 경우에는 남은 인원 에 대해서 전문기구 및 특별기구에 안내하여 해당 인원들을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도운: 간부장학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장 한정현: 저희가 중앙운영위원회 결과 공고할 때 함께 정리해서 나가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그럼 특방에 공유드리겠습니다. 결과 공고 내용 또는 링크를 함께 공유 드려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논의안건 제1호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견이나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나 의견 더 없으므로 논의안건 제1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금일 심의할 안건들 모두 심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분이나 동의 제출하실 분 없으면 이상으로 폐회 수순을 밟고자 합니다. 없으므로 폐회 수순을 밟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현재 시각 23시 38분 제2023-10회 중앙운영위원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3:38 폐회)

# 결 과

---

## ● 주요내용

### ○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 심의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2호) 물리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심의·의결함.

- 물리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안에서 지출예산 중 '물리학과 MT'의 출장비 당해 연도 예산을 '₩400,000'에서 '₩600,000'으로 수정함.

(제3호)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4호)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설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5호) 졸업준비위원회 설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 인준안건

(제1호) 졸업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 원안대로 의결함.

### ○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봄학기 학생자치단체 간부장학생 선발 방법 논의안

- 남은 5개의 T/O에 관하여 이를 정하는 방법을 논의함.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위원회 위원장 중 5인을 간부장학생으로 선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된 인원이 5인 미만일 경우에는 남은 인원내 대해서 전문기구장 및 특별기구장을 대상으로 간부장학생을 선발하기로 논의함.

● 표결결과

안건	재석	찬성	반대	기권	결과	비고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심의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심의안건 제2호 물리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	-	-	수정 가결	이의유무 표결
심의안건 제3호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19	17	1	1	원안 가결	
심의안건 제4호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설치안	19	17	0	2	원안 가결	
심의안건 제5호 졸업준비위원회 설치안	18	18	0	0	원안 가결	
인준안건 제1호 졸업준비위원회 위원 인준안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표결사항】**

○ 심의안건 제3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9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7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도운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반대 중앙운영위원(1인)**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기권 중앙운영위원(1인)**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심의안건 제4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9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7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2인)**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 심의안건 제5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8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8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 /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의 장    한 정 현    \_\_\_\_\_

위 원    강 동 재    \_\_\_\_\_

위 원    이 창 섭    \_\_\_\_\_